반다이산의 지형: 역사상 중요한 분화

반다이산(해발 1,816m)은 분화 후 용암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굳어져 만들어지는 바위, 안산암과 같은 화성 물질로 구성된 활성 성층 화산입니다. 우라반다이 비지터센터에는 12,000 분의 1 의 축척으로 만든 산의 지형 모형이 있으므로 반다이산과 주변 경관 전체를 조감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년이나 되는 기간에 걸쳐 수도 없이 분화가 일어나면서 반다이산은 원뿔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차례 분화하면서 분출된 화산성 물질이 강을 막아 이나와시로 호수처럼 새로운 수역을 만들어져 반다이산의 지형과 주위 풍경이 형성되었습니다.

1888 년 7 월 15 일, 파괴적인 대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반다이산이 수증기 분화를 일으켜 5 개의 마을과 11 곳의 부락이 암설(암석 파편)로 인해 매몰되었으며, 477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분출된 모래와 암설은 우라반다이 구역을 뒤덮었고 모든 식생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 폭발은 반다이산의 산봉우리 중 하나를 붕괴시켰고, 산등성이에 지금도 볼 수 있는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20 세기초에 시작된 삼림 재생 프로그램으로 이 지역의 생태계는 회복했고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